2021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이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 2021 Living Stream Ministry

2021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메시지 1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성경: 딤전 1:3-5, 요 4:14하, 마 1:18, 20-21, 23, 3:16-17, 6:9-10, 13, 12:28, 28:19

Ⅰ. 우리는 성경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며, 이 몸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딤전 1:3-5, 엡 3:14-21, 4:16, 계 21:2, 10-11.

A.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그들은 교회를 산출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이자,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이 모든 것의 최종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 딤전 1:3-4, 요 1:14, 29, 행 2:24, 고전 12:12-13, 15:45하, 딤전 3:15, 계 5:10, 21:2.

B. 신약에서 하나님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와 관련된다. 신성한 경륜의 성취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 롬 8:3, 11, 엡 1:3-23, 고후 13:14, 엡 3:14-21.

C. 성경 전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그들의 온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즉 원천이신 아버지와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으로 적시고자 하신다는 통제하는 이상에 따라 기록되었다 — 시 36:8-9.

D.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을 마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이다 — 요 1:14, 4:14, 7:37-39, 고전 12:13, 15:45하, 고후 13:14.

E.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요 4:14하). 근원이신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표현이신 아들은 샘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은 흐름이시다. '-에 이르다(into)'라는 말은 또한 '-이 되다'라는 의미이며, 영원한 생명의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 안에 흐르시고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시는 것의 결과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요 7:37-39, 시 46:4, 계 22:1-2, 7:17, 21:6, 22:17).

Ⅱ.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대한 통제하는 이상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다.

A.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18, 20절)과 그리스도(아들, 18절)와 하나님(아버지, 23절)은 사람 예수님을 산출하시기 위해(21절)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 예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1.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은 성령에 의한 신성한 잉태와 예수님(아들)의 출생을 계시한다. 그런 다음 23절은 이분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불리셨다고 말한다.
   2.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잉태와 아들 예수님의 출생의 결과였다 — 비교 눅 1:35.

B. 마태복음 3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속에 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으며, 아버지는 하늘에서부터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 16-17절.
   1. 주 예수님은 그 영으로 나심으로써(눅 1:35), 그분의 출생을 위해 본질적으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셨다. 그런 다음 그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위에 경륜적으로 내려오셔서, 새 왕이신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을 그분의 백성에게 소개하셨다 — 사 61:1, 42:1, 시 45:7.
   2.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 안에 넣어지심으로써 그분께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 세 가지는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도록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 마 3:16-17.
   3.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온순함과 단일함으로 사역하셨다. 그 영께서 내려오신 것은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신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증거였다.

C.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9-10절) 또한 (여기서는 아들과 영과 아버지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끝마친다(13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우세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세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1.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격의 삼일성을 함축하는 세 가지 간구를 표현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는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며'는 주로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주로 그 영과 관련된다.
      a.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는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 벧전 1:15-17, 벧후 1:4, 비교 사 11:2.
      b. 하나님의 왕국이 오도록, 우리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한다 — 롬 14:17.
      c. 신성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곧 천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것이다 — 비교 마 8:9상.
      d.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시 8:1),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계 11:15),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2. 주님의 기도의 본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마 6:13.

a. 왕국은 아들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능력은 그 영께 속한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한다.

b. 이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최고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마친다.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시다 — 고전 15:28.

D. 마태복음 12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다 — 28절.

1. 그분께서 다른 한 분에 의하여, 다른 한 분을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분께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신 것을 보여 주었다.
2.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3. 아들은 그 무엇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사심 없음을 본다. 이것은 또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4.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신성한 동역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본보기이다. 이것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께서 세우신 좋은 본이다.

a.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충분하게 건축되지 않았다.

b.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몇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수혜자가 되도록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 곧 권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E.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고전 15:45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민족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마 28:19.

1.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잠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행 8:16, 19:5, 갈 3:27, 롬 6:3-4, 고전 12:13.
2.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유기적이고 영적이며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3.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Ⅲ. 우리는 실재의 영께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모든 실재 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이들이 되어, 그분을 우리 생활의 실질과 요소 자체가 되시게 해야 한다 — 요 16:13, 15:4-5.

© 2021 Living Stream Ministry